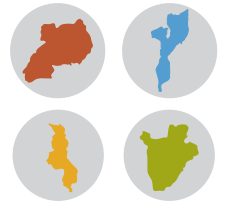




# 월드비전 희망학교 사업보고서 2012 - 13

희망TV SBS 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희망학교 건립 캠페인



#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희망TV SBS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희망학교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희망찬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2012 희망TV SBS를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월드비전은 아프리카 4개 지역에 5개의 희망학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건축된 이 학교들이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의 이야기들을 후원자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희망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그리고 학교 안을 가득 채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위해, 후원자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영구학생들에게는 책걸상이 생겼다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전에는 치마를 입고 바닥에 엎드려 글을 썼기 때문에 질문을 하거나 대답하기 위해 일어섰다 앉을 때마다 무척 불편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편리한 책걸상이 모두에게 주어졌서 마음껏 질문하고 마음껏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커서 교육관련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한국의 후원자님들께 감사 드려요.”  
-타다라(Tadara), 말라위 치치키 크리건 교관



“새 학교가 지어지기 전, 학교의 열악한 시설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나무 아래에서 수업을 하고,筆記도 없는 지저분한 화장실을 800여명의 학생이 사용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새 학교가 완공된 후, 우리 학교는 학부모님들과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열과 교사들의 교육의지도 한층 높아졌고요. 이로 인해 더 많은 학생이 중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도와주신 한국의 후원자 분들과 월드비전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레비슨 치롬바(Levison chiomba), 말라위 치치키 크리건 교관 선생님

# 모잠비크 음플루 희망학교

Mozambique Mphulu primary school

## 모잠비크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프리카 남동부의 모잠비크는 다이아몬드, 금, 탄탈라이트 등의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1인당 GDP(\$885) 기준으로 세계최빈국 중 하나이나 주변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2010년 기준 8.3%)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5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중퇴하고 있으며, 중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 여성은 1.5%, 남성은 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사업지역	테테 주 앙고니아 지역
사업기간	2012년 11월 - 2013년 10월
수혜 학생 수	2,938명
사업예산	USD 189,635 (한화 227,562,000원)



모잠비크 사업담당자  
Pedro Conhaque

## 희망학교가 생기기 전 아이들과 마을은 어떠했나요?

모잠비크는 오랜 내전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대부분의 학교건물이 파괴되었고, 교육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한 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해왔습니다. 음플루 학교 역시 모잠비크 독립 이전에 세워진 오래된 학교로 교실이 부족해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이 나무 아래에서 돌 위에 앉아 공부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 희망학교가 생기면 아이들과 마을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나요?

음플루 마을주민들은 초등교육환경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학교 건축을 위한 부지를 선정 하고 지역 주민들 또한 건축 인력 및 용수를 제공하거나 벽돌 제작을 돕는 등의 학교 건축에 필요한 과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정부 역시 교사와 행정직원들을 채용하여 새로 지어질 학교에 투입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교육 시설 확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 부족인데 희망학교 프로젝트가 음플루 희망학교 건축비를 지원함으로써 마을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역시 매우 큼니다. 음플루 희망 학교가 완공된 이후에는 학교 운영 및 유지관리의 역할이 마을주민과 교육정부로 이양됩니다. 이를 통해 마을주민들 스스로 지역 사회의 필요성과 대안을 이끌어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음플루 희망학교가 마을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Before



야외에서 수업 받는 아이들



내전 당시 무너진 교실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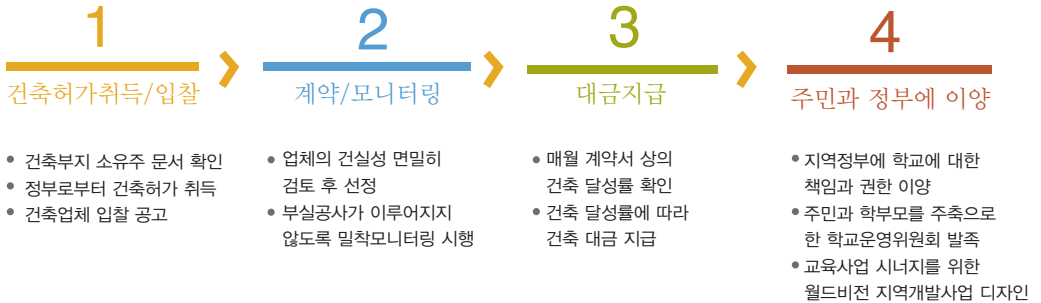
After



완공된 희망학교

# 학교지원 사업 들어다보기

## 아프리카 학교 건축의 단계



## 현장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아이티와 스와질랜드에서 학교지원사업을 수행해 온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강도욱입니다.

월드비전의 학교 지원 사업은 크게 사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학교건축, 화장실 건축 및 기자재 제공 등이 해당되는데, 월드비전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업체선정 과정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학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 절감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예로 레스토랑과 같이 돌이 많은 나라에서는 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아동보호교육, 식수위생교육, 교사 훈련, 재단 훈련, 직업 교육 등이 있는데, 사업 대상 지역의 특징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혼합해 진행함으로써 사업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 시켜 그 효과에 지속성을 추구합니다. 아이티에 지어진 한 학교의 경우 가계 소득이 전혀 없던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건축 기술을 가르치고 실제 사업에 고용함으로써 소득창출과 기술교육을 동시에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학교는 대부분 지역정부나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어진 공립학교이기에 해당 국가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와 같이 변수가 많고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모든 교육 내용을 담아 사업을 제 시간에 종료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장차 그 나라의 리더가 될 아동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월드비전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NGO  
WFP공익협력기관



2006 영국OWT  
책임성조사 NGO중 1위



2010 호암상  
사회복지상 대상수상



2010 대한민국 BSC  
전략경영대상 수상



제5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기관

월드비전은 1950년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1억명의 지구촌 이웃을 돕는 국제구호개발옹호기구입니다.